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AUGUST 2026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72



골든클럽 7월 골프대회-Wallkill

7월 16일 Wallkill Golf Club에서 27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가졌다. 2달만에 가지는 대회이어서 상대적으로 참가회원의 수가 많았다. Van을 애초에 뉴욕지역만 운용하려 하였으나 뉴욕지역 이용 회원 수가 적어 뉴저지 한남에 한번 정차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게 한 것 같았다.

지나치게 더우면 어떻 하나 하는 노파심이 있었으나 기온도 많이 높지 않고 구름이 많아 골프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였다. 아쉬운 점은 주최측이 파 3 근접상에 대한 준비를 골프클럽에 일찍 알려주지 못하여 후반 9홀중 파3의 2개 홀은 근접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외곽에 위치한 골프장이어서 그런지 라운딩하

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Shotgun 방식으로 Tee-off을 할 수 있어서 모든 회원이 끝나는 시간이 다소 일찍 되어 맛있는 음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Wallkill Golf Club은 거리가 다소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음식의 질도 좋고 맛있으며 골프장 관리상태 등이 좋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통 수입대비 비용이 많아 소액으로 적자를 보여 왔던 골프대회였으나 이번에는 박준구 회원의 후원금 덕분에 흑자를 보여 주었다.

8/12

하계 피크닉



작년에 이어 골든클럽 Family Picnic이 알파인 파빌리온에서 개최 됩니다! 골프나 하이킹에 참여가 어려우셨던 회원님들도 이번 피크닉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Alpine Pavillion은 날씨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동창회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피크닉에는 회원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문들까지 초대해서 서 함께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다채로운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8월 12일 (수) 오전 11시

← 장소: Alpine Pavillion (Alpine Approach Rd, Alpine, NJ)
\$ 회비: \$20

(등록 김병순 사무총장 (703-407-4928))

8/20

골든클럽 8월 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8월 골프대회를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Pelham /Split Rock Golf 에서 모기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호평을 받고 있는 Clearview로 준비하였으며 주위의 친지들의 동반도 환영합니다.

■ 일시: 8월 2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Clearview Golf Club

■ 참가비 일인당 120불 (그린피, 디너 포함)

■ 총진행: 김병순 사무총장

9/27

가을 여행:

캐나다 단풍 투어

가을의 정점인 9월 말, 캐나다 동부의 화려한 단풍을 만끽하며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여행 개요

일정: 9월 말 (7박 8일 예정)

지역: 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

방식: 전용 버스 대절 (우리만의 여유로운 일정과 편안한 식사)

주요 내용: 단풍 명소 투어, 지역별 별미 시식 및 화합의 시간

■ 의견 수렴

이번 여행 참가자 전체 회의가 9월 3일 (목) 저녁 7시에 동보성에서 있으나 참가자 모두 참석 바랍니다.

부음 진봉일 (공대50)

골든클럽의 존경하시는 어른 진봉일 선배님께서 7월 31일 향년 9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와 격려 그리고 즐겁게 춤을 지도하셨던 선배님의 떠나심을 깊이 애도하며 남은 가족에게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7월 골프대회후에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디너와 시상식



근접상 최병우 이강홍 회원



3등 임도혁 조승자 오용호 회원



1등 김동건 2등 성기로 김문언 회원



7월 29일과 3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Bergen Community College에서 뉴욕골든클럽과 공동으로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특강을 이길주 교수의 열강으로 진행되었다.

저희 클럽에서는 권정덕 홍선경 이대영 오용호 김동건 부부 홍예경 김정필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공동 주최인데 참석이 다소 부진하여 민망한 부분이 있었지만 참석자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참석 못하신 회원들을 위하여 이교수의 강의를 요약하여 4-5면에 게재하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한다.

골프대회 성적		
시상	이름	성적
근접상 #3	이강홍	7'6"
근접상 #7	최병우	20'8"
1등	김동건	-4 (28)
2등	김문언	-3 (19)
2등	성기로	-3 (19)
3등	오용호	-1 (28)
3등	임도혁	-1 (23)
3등	조승자	E (24)
골프대회 지출		
수입	등록	3,240
	후원금 (박준구)	500
지출	김밥 음료수	-222
	상금	-280
	그린피 /디너	-2,430
	Van	-400
잔액		408

미국 독립 250주년 역사 특강

이길주 교수 (Bergen Community College 교수)

버겐커뮤니티 칼리지와 서울대 뉴욕 골든 클럽은 7월 29일과 30일, 올해 250주년을 맞은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특강을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 특강은 미국의 독립 역사를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한인 이민 사회 또한 미국 역사의 주인이며 주역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권리도 누리본 사람이 이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무엇든 귀하면, 더 많이 갖고,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저항에 나섭니다.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남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이 삶에 제약이 가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북미 13개 식민지에 살던 주민들은 인구 수로는 세 배,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식민 통치국 영국에 대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년 2개월의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그 전해인 1775년, 미국 식민지 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의 기본 사상은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그 누구도 빼앗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입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독립 사상은 간단 명료합니다.

국가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탄생시킨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통치 권력이 앞의 결코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권리를 짓밟는 권력에 항거해, 자신들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더욱 공고히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혁명인데, 이는 권리를 넘어 책임이라고까지 독립선언서는 역설합니다.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의 권리를 파괴하는 통치 구조를 허물고, 그 위에 새로운, 즉 인간의 권리를 더 잘 증진하는 대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혁명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160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개척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자치와 자주입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3천 5백 마일가량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두 달에서 한 달가량을 항해해야 미국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모국인 영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지만, 실



(영국이 동인도회사에 북미 식민지에 대한 차(茶) 수입 독점권을 부여하자 보스턴 주민들이 이를 자유의 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행동에 나섰다. 1773년 보스턴 항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수입 차를 바다에 내던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을 묘사한 1799년 판화.)

존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정착지에 자치적 행정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고, 본국으로부터의 전령을 기다리는 대신, 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의 버지니아도 다르지 않았습니

다. 자치의 기본은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법치 국가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없는 자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자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창조주가 부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패한 권력 또는 위선적 통치란 자유를 빼앗은 상태에서 통치자가 제멋대로 정한 법에 의존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 없는 법치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의 권리라는 새로운 정치 개념을 주창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서구에서 오래 사용되었는데 "행복" 이전에 "소유(property)"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1600년대부터 한 세기 반 동안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650년 5만이었던 인구는 1750년 120만으로 늘었습니다. 경제 생산 면에서 미국은 상업 수출농으로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잉글랜드의 어업과 조선업, 뉴욕과 펜실베이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중간 지대는 곡물 창고라 해도 됩니다. 남부는 담배, 쌀, 염료를 만드는 인디고 등의 수출이 큰 부를 창출했습니다.

언급한 대로 자작농보다는 활발한 상업, 수출농에 의존한 미국의 경제 구조 안에서,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에 반하는 개념 중 하나로 세금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행위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독소라 해도 됩니다. 싸고 넓은 땅으로 옮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개척"의 권리 또한 미국인들의 실존과 직결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미 대륙의 식민지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영국은 북미 식민지로부터의 세수(稅收) 증대를 꾀했고, 동시에 원주민들과의 충돌로 야기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서부 이주와 개척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런던의 정책이 자신들의 자유와 실존을 위협한다며 "학정(Tyranny)"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혁명은 추상적 정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7년 넘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 제3강에서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어떤 정책들이 영국의 북미 식민지 주민들에게 쫓기도록 자극했는지 분석합니다.

평등한 창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기둥이 되는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흔히 미국의 "원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선언은 백인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당시 50만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쓴 토머스 제퍼슨에게는 175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노예를 사고팔았습니다. 그의 정부(情婦)인 흑인 노예 여성에게서 다섯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퍼슨은 자신이 생부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많은 흑인들에게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와 사회의 이중성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독립선언 후 80년 이상 이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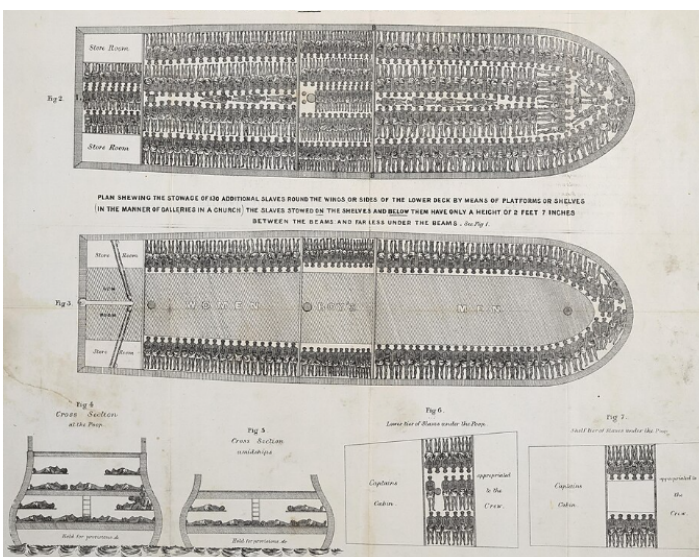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 선언을 묘사한 화가 존 트럼벌(John Trumbull)의 1819년 작품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흑인들에게 평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 독립선언 250년이 지난 지금도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표현대로 독립선언서는 흑인들에게 '부도수표'인 것이 맞습니.

자유와 권리, 행복과 너무도 거리가 먼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 독립을 선언하는 13개 식민지(주)들이 연합해야 했기 때문입니. 노예제도를 생존의 필수로 여겼던 버지니아를 위시한 남부 주들이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1776년 미국 독립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노예 소유 또한 백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였기 때문입니.

끝으로 미국 독립선언이 우리 동포사회에 갖는 의미는 큼니. 우리는 소수민족, 이민 집단입니.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신분이 상승해도 인종 편견, 차별,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 사람들은 우리의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 코비드(COVID) 당시를 기억합니. 동양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민 정서까지 합쳐져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 인종차별, 편견, 폭력은 경제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 이런 현실에서 이민자들이 자신 있게 이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독립선언서의 정신입니. 이번 특강에서 평등, 생명, 자유, 권리의 메시지가 흔히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



(독립선언서에는 노예 제도나 노예 매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이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노예를 실어 나르던 노예선의 설계도. 빈틈없이 노예를 싣겠다는 구상이고, 실제로 이런 수송 방식이 이용되었다.)

새로운 한국의 모습

윤현남 (공대 64)

금년 4월 우리 부부가 딸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손녀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첫 eye opening 경험이었겠지만, 나 역시 오랜만에 찾아온 고국의 눈부신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국의 산천과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느꼈던 소회를 적어봅니다

서울의 변화

마천루로 가득한 서울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고층 건물들이 뻥뻥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30층짜리 아파트를 50층으로 재개발하거나 60층을 넘는 비즈니스 타워를 새로 올리는 광경을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내가 서울을 떠날 당시 인구는 200만 명, 1인당 연수입은 150달러였는데, 지금은 인구가 거의 5배, 연수입은 38,000달러(약 250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2차원 도시가 지금의 3차원 도시로 탈바꿈해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남산이나 북악산에 올라 내려다보아 비로소 서울의 전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분지 안에서는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로에서나 북악산 전경을 볼 수 있지, 바로 옆 인왕산은 빌딩에 가려 보이지 않고 남산은 꼭대기만 보입니다. 내 고향 서울에서도 지도가 없으면 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 도시

서울은 위로만 뻗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열심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9개 노선, 총연장 약 350km로 서울과 주변을 촘촘히 잇고 있습니다. 주요 역을 중심으로 지하 상가와 통로가 발달하면서 '지하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시내 중심부 역들은 지하 30m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서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삼성역~봉은사역 구간 약 600m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깊이 53m(7층 구조), 폭 63m, 연장 597m에 시설 면적만 21만㎡에 달합니다. GTX-A·C선을 포함한 5개 철도 노선이 통합되는 광역 환승 허브가 핵심이며, 상업·문화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삼성동 지하철역에 내리면 땅을 파고 내려가는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2021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50%를 넘겼고 2028년 완공 예정이라 합니다.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 GBC(49층 3개 동, 2031년 완공 예정)가 올라가고, 인접한 COEX 일대와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개발까지 맞물리면서 강남 동쪽 일대가 통째로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강북과 강남, 역할이 바뀐다(?)

서울의 무게중심이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옛 도심(종로·중구) 인구는 26만 명인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인구는 162만 명에 달합니다. 조선 시대부터 심장이었던 강북 도심은 역사 유산과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력의 중심은 이미 강남으로 넘어온 지 오래입니다. 젊은 인구, 금융, 상업, 엔터테인먼트가 강남에 집중되면서 옛 서울은 '상징'으로 남고 '현재'는 강남이 쓰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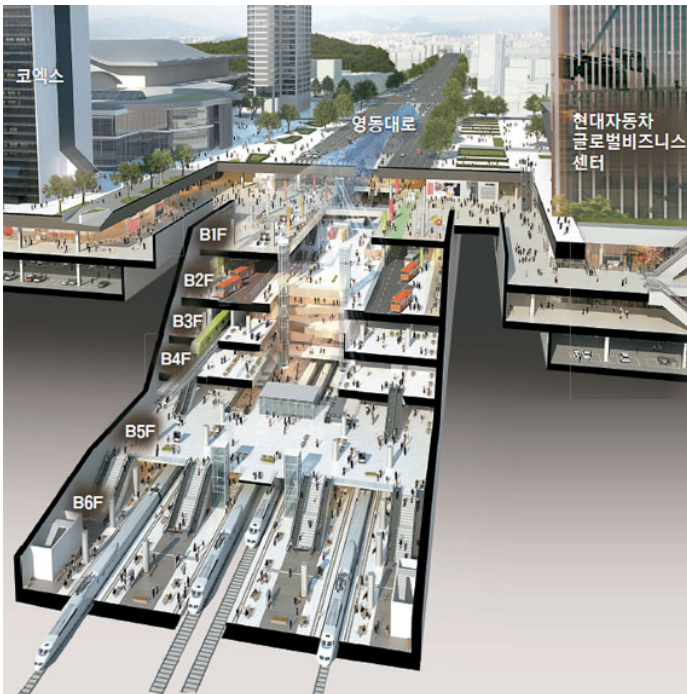
그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잠실 롯데타워입니다. 높이 555m로, 서울의 상징이었던 남산(262m)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한때 남산 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면, 이제는 남산이 롯데타워를 올려다보는 형국입니다. 한국의 중심이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의 변화 및 듀봉 주교님

한국의 철도망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어 어디든 만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아내의 듀봉 주교님 연구 때문에 안동을 다녀와야 했는데, 중앙선 복선전철 덕분에 서울에서 안동까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닿았습니다.

이번 안동 방문의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 듀봉 주교님의 삶을 조사하고, 1주년 추모 미사에 참여하며, 가까이 지내시던 교우들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듀봉 주교님은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 출생으로 1953년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사제품을 받고 1954년 한국에 왔습니다. 첫 소임지인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에서 10년간 보좌 신부로 사목했고, 이후 5년은 대전교구 학생회·노동청년회 지도 신부와 교구청에서 일했습니다. 1969년 안동교구 설립과 함께 초대 교구장에 취임한 듀봉 주교님은 1990년 자진 은퇴할 때까지 가장 작고 가난한 교구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법상 정년이 14년 남았



지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조직을 이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인이 교구장을 맡아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북 의성의 작은 공소에서 텃밭을 가꾸며 35년을 보내다 2025년 선종하셨습니다. 주교님의 사목 표어는 "기쁘고 떳떳하게"였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교구이지만 서로 나누며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생활과 문화의 변화

젊은 세대가 만드는 친절하고 편리한 한국

한국이 달라졌다는 것은 일상에서 느껴집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직원들은 밝은 얼굴로 신속히 안내해 주었고, 관공서 창구에서도 무뚝뚝했던 예전 기억과 달리 친절하고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길을 물으면 젊은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목적지 앞까지 함께 걸어 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버스 안에서입니다.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 20살 때의 서울 기억을 떠올리며 창밖을 보고 있으면, 맞은편 젊은이가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를 합니다. 잠깐이나마 젊은 시절 기억에 빠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잇는 일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공기, 교통 안전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센서와 모니터가 눈에 띕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을 실시간 감지하는 공기질 센서, 교차로마다 흐름을 파악하는 카메라, 데이터를 모아 신호와 경고를 조율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작동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인프라는 공기질 정보를 지하철 전광판과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교통 흐름 데이터를 신호 체계에 실시간 반영합니다. 횡단 보도 바닥의 LED 경고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에게도 신호를 알려줍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로, 이 분야만큼은 서울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 홍대 앞, 성수동

어디를 가자고 먼저 말하는 쪽은 손녀들이었습니다. 손녀들은 오기 전부터 유튜브와 SNS로 이 두 곳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 속 홍대 앞은 버스 종점이고 성수동은 가발공장이 있던 곳이었지만, 손녀들에게는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must place'였습니다.

홍대 앞은 한때 젊은 예술가들의 동네였지만 지금은 K-pop 팬들의 성지가 되어 아이돌 굿즈 가게와 클럽, 버스킹 공연이 이어집니다. 성수동은 수제와 공장이 늘어서 있던 공업 지역이었는데, 낡은 창고 건물을 그대로 살린 카페와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며 '서울의 브루클린'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Dynamic Arts — 미술, 디지털, 빛, 그리고 몸의 예술

이 퍼포먼스도 딸과 손녀들에게 끌려가 맞본 한국의 dynamic



art였습니다. 서울 아르떼뮤지엄에 들어서면 벽과 바닥, 천장이 모두 살아 움직입니다. 고흐의 붓터치가 발밑으로 흘러내리고, 전통 산수화의 먹빛이 공간을 물들입니다. 관람객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공간 전체를 캔버스 삼아 영상과 음악을 쏟아 붓는 몰입형 프로젝션 아트는 프랑스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콘텐츠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긍심 가득한 한국인과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한국인, 특히 젊은 세대는 문화, 생활,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 뚜렷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떤 분야는 오히려 앞서 나갑니다. 이 자긍심은 K-pop, 영화, 반도체, 조선, K-푸드, 뷰티 등 세계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객관적 결과이기에 더욱 단단합니다.

이 모멘텀을 계속 키워 나가기 위해 멀리 살고 있는 한국인의 의견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위협합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주거, 육아, 일·삶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다양성의 수용입니다. 세계와 깊이 연결될수록 다른 언어,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민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창의성과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인의 빠른 실행력은 세계적인입니다. 이제는 수평선 너머의 목표를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와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다음 단계의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 길도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회원 명단 (109명 / 2026-7-25)

강교숙	김문언	민준기	신두식	이승준	정도현	한민우
강에드	김병순	박기환	신진식	이 준	정수일	한용오
강영선	김상만	박상원	신응남	이대연	조달훈	한태진
계동휘	김승호	박준구	오순문	이대영	조승자	한용희
고애자	김영덕	박희병	오용호	이영범	정준영	허용웅
곽선섭	김영만	배상규	오인석	이용대	정해민	홍정표
권문웅	김우영	성기로	우규환	이위곤	조상근	홍종만
권정덕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전구	주상선	홍예경
홍선경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대	주재양	
권영대	김창수	손대홍	윤상영	이종석	진봉일	
권태전	김충정	남종현	윤재욱	이준행	천병수	
금영천	김치갑	손옥화	윤종숙	이행순	천종화	
김광수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이홍빈	최병우	
김광현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임도혁	최준희	
김동건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임호순	최한용	
김득해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전문준	문 선	
김문경	노용면	송혜순	이상원	전병삼	최학주	

골든클럽 행사 2026

2월	12일(목)	Talk show (Hilton Garden Inn) 23명 참가
3월	7일 (토)	신년교례 (Double Tree Hotel) 75명 참가
4월	2일(목)	Masterclass 2강 이길주 교수
	23일(목)	골프대회 (Sunset Valley 27명참석)
5월	7일(목)	Masterclass 3강 AI 비서 만들기
	28일(목)	뉴욕동창회 춘계골프대회
6월	11일(목)	피크닉 (Minnewaska State Park)
7월	16일(목)	골프대회 Walkill
	30일(목)	Masterclass 미국 독립 전쟁
8월	12일수)	피크닉 (Alpine Pavillion)
	20일(목)	골프대회
9월	10일(목)	Masterclass -Financial Literacy
	24일(목)	골프대회
	9/27-10/4	Canada 여행
10월	15일(목)	단풍관광
	22일(목)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1월	5일(목)	골프대회
12월	5일(토)	뉴욕동창회 송년회
1월		Florida 골프여행
3월	6일	2027 신년교례

2026년 연회비 납부 명단 81명 / \$8,100 /2026-7-25)

강에드	김병순	박준구	오순문	이용대	정준영	홍예경
곽선섭	김영덕	박희병	오용호	이위곤	조달훈	홍정표
권문웅	김영만	배상규	오인석	이종대	조승자	(2027)
권정덕	김우영	성기로	우규환	이종석	조상근	윤종숙
홍선경	김익성	손경택	육재희	이행순	주상선	
계동휘	김정필	손대홍	윤선구	이홍빈	진봉일	
권영대	김충정	남종현	윤종숙	임도혁	천병수	
금영천	김태일	손갑수	이강홍	임호순	최준희	
김광현	김한중	송근숙	이대연	윤상영	최한용	
김동건	김현중	송학린	이상무	정해민	문 선	
김득해	민준기	송혜순	이상원	전문준	한태진	
김문경	박기환	신응남	이승준	전병삼	한용희	
김문언	박상원	신진식	이영범	정수일	홍종만	

2026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1,900 2026-7-25)

강에드 300	김영덕 100	오순문 200	전문준 500
계동휘 300	김영만 500	오용호 500	정해민 2400
금영천 300	김정필 300	우규환 200	최준희 300
권정덕 500	김한중 300	이강홍 500	최한용 500
김광현 300	성기로 400	이상원 200	홍종만 1000
김동건 100	손경택 900	이종대 200	
김문경 300	신진식 500	이행순 300	

2026년 입회비 납부 명단

김득해 전병삼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8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상만 (법대52) 홍종만 (공대64)
 김한중 (의대56)
 남종현 (가족)
 노승만 (공대63)
 송웅길 (대학원)
 윤현남 (공대64)
 이대연 (약대65)
 정해민 (법대55)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골 든 클 럽 회 비 납 부 양 식

성명과 바뀐 내용만 적어주세요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연회비 \$100
단과대	학과	입학연도	후원금(\$)
전화번호	이메일		입회비 \$200
주소			